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정당 정치 변화\*

김 용 민

## [국문초록]

2016년 6월 23일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의 결과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 나면서 소위 브렉시트에 대한 여러 논의는 2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 시점에도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만족할 만큼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영향이나 유럽연합과 영국과의 국제관계에 더하여 지역연구로서의 영국 국내정치의 정당들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브렉시트 제1단계 협상에서 가장 잠재적으로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이며 이는 스코틀랜드 독립논쟁의 재연과 보수당의 연립정권 유지에도 관련되어 있다. 현재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앞으로 영국 국내의 정당 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브렉시트로 야기된 불확실성, 불투명성은 짧은 시간 안에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는 협상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역외국가로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새로운 관계를 관찰하여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브렉시트, 브렉시트 협상, 보수당, 노동당, 테레사 메이

---

\*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1. 서론

2016년 6월 23일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의 결과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 나면서(이하 브렉시트라 칭함) 소위 브렉시트에 대한 여러 논의는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도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은 만족할 만큼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럽연합의 재정악화가 가져온 영국 내의 유럽연합에 대한 불만여론이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의 브렉시트 협상은 진행 중이다. 소위 이혼 협상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브렉시트 협상과정과 국민투표 이후의 영국 국내 정치에서 영국의 각 정당들은 어떠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 테레사 메이 내각 체제가 도입된 이후에 브렉시트 협상과정의 안정적인 주도권 행사를 목표로 한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은 예상을 뒤엎은 패배를 당하였고 이에 북아일랜드의 소수 정당과 불안정한 연립정권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도 급속도의 변화가 현재 영국 국내정치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각 정당별 대응도 각각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브렉시트 협상과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과 영국의 관계변화, 혹은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에만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제적인 영향이나 유럽연합과 영국과의 국제관계에 더하여 지역연구로서의 영국 국내정치의 정당들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브렉시트 협상 이후 영국의 국내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잠재된 문제인 스코틀랜드 지역의 독립문제는 재연될 것인지, 보수당의 집권은 유지 될 것인지 등의 질문의 답을 찾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이에 이어질 2장에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양하게 발생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여 이제까지의 논점을 정리해보고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쟁점들을 발견하는 작업을 하며 3장에서는 본론으로서 영국의 각 주요당들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의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 변화와 브렉시트 국민투표 관련 공약의 이행도를 비교분석한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조기총선 이후의 영국 국내정치의 여러 가지 변화와 브렉시트 협상이 영국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정당 정치의 변화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브렉시트 협상의 미래와 영국 국내 정치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여 본다.

## 2.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의 선행연구 정리 분석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국내외 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의 브렉시트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브렉시트가 실제로 발생함에 따른 유럽의 통합과 분열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유럽통합의 포용과 배제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다. 대표적으로는 브렉시트 결정의 유럽의 통합과 분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거나(방청록, 2017) 브렉시트에 대해 근원적으로 연구한 논문(이영석, 2017),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 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들(Chun, 2016; 온대원, 2017), 브렉시트를 가져온 영국인의 영국 정체성에 관한 연구(윤성욱, 2017) 등이 그것이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 정치적인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황기식, 문보경, 손수연, 2017; 김용민, 박영득, 2017)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커다란 국내 선행연구의 흐름은 역시 브렉시트로 발생하는 유럽의 통합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들이다. 브렉시트가 유럽연합의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김종욱, 2016)이나 브렉

시트 이후의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찰한 연구(박광수, 2017), 영국의 통상정책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다룬 연구(강유덕, 2017) 등이 그것이다. 즉 두 가지 경향이 하나는 유럽통합과 영국 국내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유럽 통합시장과 영국의 경제적인 변동을 고찰하는 연구들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해외의 브렉시트 관련 연구들은 국내보다는 훨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에 이르게 된 근원적인 영국 내의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Smith, 2018)나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계층이 나타나게 된 경제적 차별의 문제(Watson, 2018), 브렉시트에 대한 보수당의 태도가 동일한 지지가 아님을 밝히는 정당 연구(Lynch, Whitaker, 2018), 브렉시트가 발발하기까지의 영국의 정치엘리트 집단의 잘못된 선택을 고찰하는 연구(Bailey, 2018) 등이 그것이다. 또한 브렉시트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스코틀랜드의 독립문제의 재부상에 대한 연구(McEwen, 2018)도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해외의 연구들은 국내의 연구들이 영국과 유럽연합의 국제관계 혹은 통상, 경제에 있어서의 다국가의 영향을 연구함과는 다르게 브렉시트를 순수하게 영국 국내문제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는 것이다. 즉, 브렉시트의 발발 원인을 먼저 국내에서 고찰하는 작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의 브렉시트 협상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는 점이 해외의 연구들이 확정된 요인만을 연구하는 경향을 가져왔다고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국내의 연구에도 이러한 영국 국내적인 요인을 좀 더 심화하여 고찰할 필요성이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브렉시트 이후의 정치적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도 조기 총선거의 결과를 브렉시트의 요인과 연결하여 분석하거나 메이 내각의 보수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경성 브렉시트가 지지와 브렉시트의 개개의 이슈 중 이민통제와 유럽연합의 분담금 문제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황기식, 문보경, 손수연 3).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나온 시점과는 다르게 브렉시트 협상의 내용이 짧

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보였으며 최초에 영국이 선호하였던 경성 브렉시트(Hard Brexit)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의 각 주요 정당들(보수당, 노동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독립당, 북아일랜드 연합당 등)의 브렉시트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의 브렉시트 협상에 따른 국내 정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이제까지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브렉시트의 국제관계,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하였던 것을 벗어나 지역학으로서 영국(United Kingdom)의 국내적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정당들,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그러면 이어지는 3장에서 영국의 각 주요정당들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의 입장 변화와 브렉시트 국민투표 관련 공약의 이행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 3. 영국 주요정당 브렉시트 공약 및 국민투표 이후의 협상 전개

그러면 각 주요정당들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점에 어떠한 공약 혹은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국민투표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확정된 이후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이번 장에서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점에서는 영국독립당(UKIP)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식적으로 유럽연합 잔류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압도적으로 유럽연합 탈퇴 진영(Brexit) 이 불리한 가운데 국민투표가 시작되었고 대부분 유럽연합 탈퇴가 실제로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였다. 그 당시의 보수당 내각도 유럽연합 잔류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던 장관 이안 던컨 스미스(Ian Duncan Smith)는 국민투표 이전에 사직하였다. 그러나 보수당 국회의원 중에는 개인적으로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존재하였고 그 중 대표적인 의원이 현 테레사 메이 내각의 외무부 장관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이다. 유럽

연합 탈퇴를 내세운 탈퇴지지 진영이 유럽연합을 벗어나면 가장 유리해지는 것이 과도한 유럽연합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이었고 특히 영국이 유럽연합에 내는 돈보다 더 작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였다(“Brexit: Some Legal and Constitutional Issues”). 실제로 영국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돈을 유럽연합에서 분담하고 있었고, 실제 유럽연합이 매주 3억5천만 파운드씩을 가져가 의료보험인 NHS가 압박을 받는다고 탈퇴진영은 주장하며 유럽연합 탈퇴가 되면 이 돈을 매주 의료와 복지예산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선전했다.<sup>1)</sup>

물론 이러한 비용은 존재하지 않았고 복지나 의료에 투자되지도 않았다. 같은 성격으로 탈퇴 지지자들이 주장한 것이 영국 근해의 어업권 문제였다. 즉 섬나라인 영국의 수자원을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어 다른 유럽의 어선들이 자유롭게 영국 해안에서 조업을 하여 영국어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주장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영국 어민만이 영국 해안에서 조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하였는데 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현재도 어업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 영국이 만약 다른 유럽국가의 조업을 금지한다면 영국의 어민도 다른 유럽국가에서 조업이 불가능해져 실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공약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당시에 검증되지 않았지만 단지 인기를 위한 선전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또 중요시 된 문제가 역시 이민자 문제였다. 이민에 대해 2011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내세운 공약이 연 이민자를 10만 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2015년에 33만 6천명이 영국에 이민하였다(“Net Migration to UK”). 유럽연합이 28개국으로 확대되며 동유럽에 새로이 유럽연합에 편입된 국가들로부터 영국에 취업을 목표로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이는 저임금 노동력을 기업들이 이러한 이민자들로 대체하게 되면서 영국 노동자 계급이 유럽연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전통적인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와 맞물리며 투표에 있어서 폭발력을 지니게 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진영은 브렉시트가 성립되면 국경을 영국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이민자수

를 획기적으로 제한하고 입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의 브렉시트 협상 추이를 보면 이 또한 사실이 아닌 주장이다.

그 다음으로 유럽연합 탈퇴를 지지한 사람들 진영에서 문제로 제기한 것이 유럽연합의 확대(신입 회원국의 가입)였다. 이미 동구권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값싼 노동력이 대량 유입되고 있던 영국에서<sup>2)</sup> 특히 터키의 잠재적 유럽연합 가입 가능성은 매우 강한 논쟁의 요인이 되었다. 영국 총리이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원래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유럽 이민자 위기를 계기로 그리스에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터키로 송환시키는데 이미 유럽연합이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이 문제는 이미 독일의 메르켈 정권의 이민자 100만 명 수용선언과 맞물려 영국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예민한 주제로 부상하였고 이에 유럽연합 잔류를 천명하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터키는 당분간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어려우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유권자들을 설득하였다(“EU Referendum”). 그러나 국민투표 직전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콜빈의 터키 가입 환영 연설이 취소되는 등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결정하는 매우 예민한 주제로 남았으며 이는 이민자 문제, 경제 문제, 국경과 영국의 주권 문제 모두에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즉,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주로 논의된 주제들은 바로 경제문제와 복지문제, 그리고 고용문제 등의 국내의 불만의 원인을 국내에서 찾는 것이 아닌 유럽연합에 찾는 전통적 유럽회의주의 정서를 이용한 유럽연합 탈퇴 진영의 운동 전술에 따라 실제로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유권자 뿐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US Should Stick Out of UK Affairs”). 실제로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 가장 중심적으로 유럽연합 탈퇴진영을 이끌었던 영국독립당은 브렉시트 투표 종료 직후 당수이던 나이젤 파라쥬(Nigel Farage)가 목적을 이루었다며 사퇴하고 (“Nigel Farage Resigns”) 결과적으로 영국독립당에서는 정치인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가 되어 많은 비난을 받고 정당의 지지도가 하락하였다.

그러면 실제로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가결되어 브렉시트가 정식으로 결정되고 나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공식적으로 유럽연합과 탈퇴를 위한 협상에 돌입하였다. 간략하게 이제까지의 유럽연합과 협상 추이를 정리해보면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가 결정된 후에 2017년 3월 29일 영국은 정식으로 유럽연합에 탈퇴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2년간의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탈퇴에 따른 주요 쟁점과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미래 관계 설정의 두 가지 큰 문제에 대해 동시에 논의하는 것을 원하였으나 2017년 4월 29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협상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Phase 1)과 두 집단의 미래 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Phase 2)으로 나눠서 협상해야 하며 첫 번째 협상이 충분히 진전되어야 두 번째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 영국이 이에 대해 첫 대면 협상이 있었던 6월 19일 동의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협상이 ‘제1단계’와 ‘제2단계’로 나누어졌다. 이어서 2017년 12월 14-15일의 양일간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제1단계 협상이 중요 쟁점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히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협상은 공식적으로 제2단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12월 8일 Junker EU 집행위원장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의 제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에 합의하였고 이어서 양측 협상 대표들이 협상 경과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Joint Report”). 이 보고서는 이어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제1단계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원칙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앞으로의 협상과정이 아직도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된 세부 사항은 아직도 여전히 협상이 계속 되어야하는 상황이다.

제 1단계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은 세 가지로서 ①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영국의 재정적 의무 정산(속칭 이혼 위자료 Divorce Bill), ② 영국이 탈퇴할 경우 영국에 거주 중인 유럽연합 국적자의 권리보장 혹은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 중인 영국인의 권리보장(상호 교차 보장) ③ 영국-아일랜드 국경 문제이다. 이 세 가지



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필수적인 의제로서 제2단계로 돌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들이다.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제1단계가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실제로 제2단계의 협상이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주제들이고 실질적인 협상기한이 2018년 10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과연 복잡한 제2단계 협상을 종료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협상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협상결과에 상관없이 2019년 3월 30일부터는 유럽연합을 탈퇴하여 역외 국가로 전환되게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양측의 의회 비준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여 양측 모두 2018년 10월까지의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작성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탈퇴 조약 초안에 대한 성문화 작업에서 영국-아일랜드의 국경문제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3.1 영국의 재정적 의무 정산 (Divorce Bill)

공식용어는 재정적 정산(Financial Settlement) 이지만 속칭 이혼 위자료(Divorce Bill)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인다.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한 진영에서는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그 분담금을 영국의 복지예산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선전을 하며 재정적 지출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영국 정부는 2017년 12월 협상에서 결국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2020년까지 2014년 유럽연합 중기 재정 계획에서 공약한 기존의 재정분담액을 유럽연합에 지속적으로 지불하는데 합의하였고 구체적인 액수는 제2단계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총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3천5백만-4천만 파운드인 영국 정부가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U.K. Brexit Divorce Bill"). 이는 처음 언론들이 예상하던 액수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준이지만 문제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함으로써 발

생하는 비용은 이 재정적 정산금 이외에도 기존의 유럽연합이 지원하던 영국으로의 지원금을 자국의 예산으로 대체해야 하고 유럽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영국이 다시 개별 국가로서 체결해야 하는 조약이 295개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조약들을 대체하기 위한 협상을 위한 예산, 각 대학에 유럽연합으로부터 지원되던 예산의 대체 등의 추가 비용은 계산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유럽연합 탈퇴로 예상되는 파운드 화의 하락, 증권시장 등의 경제적 악영향 등을 감안하면 영국 정부가 받게 될 경제적, 재정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영향은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

### 3.2 상호 교차 보장 시민의 권리

유럽연합은 통합 초기에서부터 유럽 연합 안에서 시민들의 이동과 거주 자유를 보장하며 통합의 상징으로 삼아왔다. 협상이 진행 중인 현재 영국에 약 320만 명의 유럽연합 출신의 외국인이 거주중이고 유럽대륙에는 약 87만 명의 영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상호 교차하여 인정하는 부분이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에 영국과 유럽연합은 이제까지의 권리를 상호 유지하는 법적 안정성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 ‘탈퇴 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영국민은 유럽연합에 대해 “특별한 지위(Special Status)”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부분에 아직 예민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바로 유럽연합법이 회원국 법보다 우선하던 부분에 대해 영국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국가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유럽연합 탈퇴 진영에서 유럽연합 탈퇴의 주요 이유로 거론하고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특별한 지위와 상호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를 관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할권이 어느 수준에까지 강제성을 지니게 되는가에 대해 제2단계에서 추가 협

상을 마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이는 협상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 3.3 영국-아일랜드 국경문제

다음으로 제1단계 협상에서 가장 난관으로 드러난 영국과 아일랜드 국경의 문제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영국의 일부 북아일랜드 지역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다음에도 아일랜드 섬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안정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목표로 조기 총선거를 실시한 영국에서 예상을 뒤엎고 보수당이 안정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과 소연정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서(김용민, 박영득 141) 이 국경문제는 영국 정치에서 연정의 유지 조건이자 보수당 정권의 유지에 필수조건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특히 연정의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유럽의 단일시장에서마저도 탈퇴하는 경성 브렉시트(Hard Brexit)를 반대하고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는 잔류하는 연성 브렉시트(Soft Brexit)를 이미 총선 시점에 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정 발족 시기부터 이 브렉시트에 대한 공약의 차이를 어떻게 보수당 내각과 테레사 메이 총리가 극복하느냐가 초점이 되었고 여기에 국경문제까지 맞물려 더욱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1단계 협상에서도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영국의 메이 내각이 선호하는 경성 브렉시트를 고집하려면 아일랜드의 국경은 물리적 제한을 두고 통행을 제한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연립정권이 붕괴되어 내각이 유지되지 않고 만다. 이에 현재 나오고 있는 대안으로는 ‘Backstop’(보호벽)이라는 해결방법이다. 아일랜드섬에서만 관세동맹이 유지되게 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는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사이를 국경으로 제한해야만 영국본토가 관세동맹과 공동시장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되는 관계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부터 잠재적 문제성이 논

의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아일랜드와 동시 가입을 함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경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유럽연합의 정책에 이번 탈퇴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상이 제 1단계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 3가지이며 제2단계에서는 더욱 중요한 협상들이 남아있는데 바로 영국의 ‘탈퇴 협정’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한 협상과 앞으로 영국이 탈퇴한 이후의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미래 관계에 대한 설정 내용에 대한 협상이 그것이다. 현재 양쪽은 약 2년간의 과도기 혹은 전환기 (transition period)에 협의한 상태이고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후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새로운 미래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이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양자 간의 외교, 안보, 통상, 내무, 사법, 경제 관계 등을 모두 다루어 협상을 완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전환기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4월부터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제2단계의 대면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체계/framework의 협상일 뿐이며 아직 무역협정으로 돌입한 것은 아니다. 전환기가 필요한 이유는 영국이 선언한 시일 안에 영국과 유럽연합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협상이 끝나기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이러한 전환기로 확보된 약 2년 9개월의 기간도 부족하며 10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결론적으로 브렉시트 협상의 추이를 살펴보면 처음 국민투표가 실시되던 시점의 공약들과 현재의 협상의 내용은 매우 다르며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잔류를 주장하던 진영도 탈퇴를 주장하던 진영도 브렉시트가 벌어지고 나서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러한 협상과정에서의 여러 변화들이 영국 정당정치에 가져온 변화를 본격적으로 각 정당별로 살펴보고 영국의 국내정치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잠재된 문제인 스코틀랜드 지역의 독립문제는 재연될 것인지 그리고 보수당의 집권은 유지될 것인지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 논증해 보도록 하겠다.

#### 4.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의 영국의 주요 정당 변화

먼저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예상외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탈퇴가 다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 정당은 역시 영국에서 집권여당이던 보수당일 것이다. 당수이자 총리이던 데이비드 캐머런이 국민투표 다음날 유럽연합 탈퇴 다수의 투표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테레사 메이 총리가 보수당 당수와 내각의 총리직을 승계하였다. 유럽연합 국민투표의 원래 목표가 데이비드 캐머런에 의해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독립당과 같은 극우정당, 그리고 보수당 안의 그에 동조하는 일부 극우 성향 의원들의 논란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의 사례와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 제도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였으나 예상외의 결과로 인해 오히려 데이비드 캐머런이 정계를 은퇴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 결과 보수당의 공식적인 견해는 유럽연합 탈퇴를 원하는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어 경성 브렉시트를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하였던 노동당도 정당의 주류가 유럽회의적이고 단일공동시장에 비판적인 좌파로 환원되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잔류에 투표한 대다수의 영국의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대표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였다(Applebaum 56). 또 유럽연합 탈퇴로 결정 난 국민투표의 결과는 의회의 의원들의 다수의견이었던 유럽연합 잔류와는 정반대로 전통적인 의회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의회민주주의의 무력화, 직접민주주의 경향의 강화로 나타나게 되어 브렉시트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의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국민투표로부터 2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영국 유권자들은 주요 정당들의 브렉시트 공약들이 실천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영국에 유입되는 절반 이상의 이민자가 실제로는 유럽연합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Applebaum 57). 또한 유럽연합과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러면서도 유럽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연계를 지니고 있다는 현실만이 재인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17년 총선거에서 투표로 드러났는데 메이 내각이 예정된 일정보다 조기에 총선거를 실시한 이유가 바로 브렉시트 때문이었고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앞두고 강하고 안정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선거가 시작되었다. 보수당이 총선거 이전의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사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노동당으로서도 국민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만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의 우선순위가 보수당과 전혀 다르며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경성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당론이었기 때문에 조기총선으로 인한 영국 정부 협상전략의 확정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2017년 총선거의 브렉시트 관련 공약을 비교해보면 보수당은 단일시장으로부터 탈퇴하는 강한 자세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공약을 “잘못된 협상보다 협상을 하지 않고 탈퇴하는 것이 영국을 위한 길(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for the UK)”이란 표어로 제시했다. 이에 반하여 노동당은 브렉시트 백서를 백지화하고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하여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스코틀랜드의 유럽시장 잔류를 주장하였고 영국독립당은 즉각적인 유럽연합 탈퇴와 유럽연합에 대한 예산지출의 즉각적인 정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김용민, 박영득 147).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총선거의 결과는 어떠한가? 2016년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와는 전혀 다르게 브렉시트를 강하게 주장한 영국독립당이 몰락하고 이러한 영국독립당의 표를 흡수하여 안정적인 강한 여당을 구축하려던 보수당도 사회복지 정책 공약의 실패, ‘치매세 논란’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2017년 조기 영국 총선거는 2015년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에 부정적으로 변한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을 영국독립당의 몰락과 노동당 당수 콜빈의 대중적 인기 부족을 바탕으로 총선거에 대승을 예측한 메이 내각이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실시한 조기 선거에서 사회복지 정책의 실패로 보수당 내부의 비판까지 받으며 과반 안정 의석을 상실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김용민, 박영득 164). 선거 결과로 인하여 보수당 내부에서의 메이 총리의 구심력은 매우 약해졌다. 위험을 감수하고 실시한 조기선거에서 패배한

책임론이 나오게 되었고 브렉시트 협상의 동력도 감소되었다. 메이 총리가 아직도 총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보수당에서 그를 대체할 정치인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대중적인 지지가 아니다. 그러나 메이 총리를 대체할 당내 주요 정치인들도 보리스 존슨처럼 브렉시트를 지지하여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대중적인 인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보수당의 대체 세력인 노동당은 어떠한가? 노동당은 예상외로 2017년 총선거에서 선전하였지만 노동당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당이 스스로 실책을 범하며 무너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거기에 당수인 제레미 콜빈과 노동당 의원들 사이의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크다. 콜빈은 2015년 당수로 선출되었을 때 이미 사회주의의 21세기적 새로운 해석을 주장하며 블레어부터 이어오던 노동당의 중도노선인 제3의 길을 부정하는 개혁을 표방하였다(김용민 138). 이에 콜빈은 브렉시트에 반대하지 않는 유럽단일시장에 비판적인 좌파 정치인이라는 의심이 계속되었고 실제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있어서 잔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세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sup>3)</sup> 또한 콜빈은 브렉시트에 있어서도 보수당 정부와 동일하게 경성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이미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과시킨 이상 유럽연합이 단일시장에만 참여하는 연성 브렉시트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와 브렉시트 이후의 경제적 충격을 비롯한 국내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유럽 단일시장을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노동당 내부의 중도 성향 의원들과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Jeremy Corbyn Insists”). 콜빈은 지속적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는 존중되어야함을 표명하며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재투표 가능성이나 연성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콜빈의 노동당의 입장은 야당으로서 여당인 보수당의 내부 분열과 유럽연합과의 협상의 실패를 공격하며 국내적인 정치적 승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보수당과 메이 내각에게 그렇게 협상을 못한다면 차라리 노동당에게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맡기라는 정치적인 제

스처를 취하기도 하지만 아일랜드와의 국경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시장으로부터는 탈퇴하지만 관세동맹에는 남아있는 형태의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다 (“Jeremy Corbyn Backs”). 자신의 정당인 노동당 내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그 모호성을 공격받고 있지만 콜빈은 적극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보수당의 브렉시트 협상과정에 있어서의 혼란과 분열을 공격함으로써 야당으로서의 국내정치에 있어서의 이점을 추구하는 현재의 전략을 당 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총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일정부분의 약진을 이룩한 콜빈으로서는 노동당 당권에 대한 위협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22년으로 예정된 총선거에 대비해 이러한 전략은 유효해 보이며 보수당 정권이 전환기 기간 혹은 2020년까지 제대로 된 브렉시트 협상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를 비판하며 대안세력으로 역할을 수행하여도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정당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정당은 역시 스코틀랜드 민족당과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다. 두 정당 모두 경성 브렉시트에 대해 반대외사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경성 브렉시트를 보수당과 영국정부가 강행할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말에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경성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초당적 협력을 위해 모든 야당의 당수를 회담에 초청하였고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으로부터의 탈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 하고 있다(“SNP Invites Opposition Leaders”). 노동당의 콜빈이 참가를 거부하여 화제가 된 것이 이 모임으로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문제가 영국 정부가 어떠한 형태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스코틀랜드 단독으로도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연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경성 브렉시트에 반대하여 보수당과의 연정을 파기한다면 보수당은 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소수 여당이 되고 만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와 연정의 붕괴는 앞으로도 브렉시트 협상에서 잠재적인 위협요소로 계속해서 영국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스코틀



랜드 독립론은 2014년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겨우 수면 아래로 내려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정치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독립투표의 재실시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스코틀랜드 민족당과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의 태도는 변화할 수 있고 그 파괴력은 연정의 붕괴와 스코틀랜드의 독립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보수당 메이 내각이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는 앞으로 산적한 제2단계 협상과정이 하나하나 공개되어 나올 때 마다 시시각각 변화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의 대응은 스코틀랜드 민족당보다도 더 명확하다. 이미 보수당과의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고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대해 비판해왔고 (“Arlene Foster Hits Out”) 최소한 ‘backstop’ 대안이라도 실시되지 않을 경우 연립정권은 붕괴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2017년 12월부터 국경문제에 있어서는 보수당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을 통보한 바 있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주제임이 확실하다. 이 문제에 연립정권의 유지와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의 재연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보수당 메이 내각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의 영국의 주요한 정당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보수당 메이 내각의 안정성은 매우 취약하다. 메이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국민의 지지도도 낮으며 최근 들어서 내각이 추진하는 브렉시트 관련 법안들이 전부 상원에서 비준이 거부되며 비록 강제성이 없는 상징적인 상원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지속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나 야당인 노동당도 분열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보수당의 실수를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결과가 예상외였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대응이 늦어졌고 당내 분열이 있었으며 국민투

표에서 승리하였지만 역설적으로 영국독립당은 의석을 거의 상실하고 당이 존속의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문제는 영국이라는 국가의 지속성과 정체성에도 위기의식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유럽연합 탈퇴라는 냉엄한 현실에 대하여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미 협상이 시작되고 유럽연합도 영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재 국민투표에 대한 결과는 좋던 나쁜던 영국 유권자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협상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에 반하여 영국의 총선거는 2022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2017년 총선거의 결과를 유지하는 형태로 불안정하지만 이대로 현재의 정국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조약에 있어서 영국에 불리한 사실이 포함된다면 언제나 불안정한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앞으로 진행될 제2단계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진행 예상과 영국의 정당 정치 변화 또한 제1단계의 합의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하여 한국을 비롯한 유럽이 아닌 역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고찰하려한다.

## 5. 결론

이제까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의 영국의 정당 정치의 변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예상외의 결과로 귀결된 이후에 2017년 보수당의 정치적 선택으로 실시된 조기 총선거는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강력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보수당 테레사 메이 총리 내각의 의지와는 반대로 더욱 불확실성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단독 안정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보수당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과 불안한 형태의 소연정을 통하여 다수당의 위치

를 유지하였지만 브렉시트에 대한 협상 동력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보수당 내부의 유럽연합 탈퇴 선호 국회의원들이 메이 총리를 대체할 만큼의 정치적인 능력과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불안한 형태로 메이 내각은 유지되어 가고 있다.

한편 전통적 주요 정당이자 야당인 노동당도 당내 의견 통일이 안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블레어 이래 제3의 길을 선호하는 친 유럽파 의원들이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경성 브렉시트를 제거하고 단일시장에 남는 선택을 하자 주장하고 있지만 당수인 콜빈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국민투표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콜빈의 유럽연합 잔류에 대한 진정성은 브렉시트 투표 운동 시점부터 여러 차례 의심받아 왔으며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보수당의 실패를 바탕으로 노동당의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이러한 영국의 두 전통적 양대 정당에 비하여 비교적 확실한 자세를 브렉시트에 대해 보이고 있다. 스코틀랜드 지역만이라도 공동시장,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연성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의 처리 방안과 브렉시트 협상 과정의 추이에 따라 다시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보수당과 연정을 실시하고 있는 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보수당의 공약인 경성 브렉시트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연정이 실시될 시점부터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국경문제에 있어서는 양보의 가능성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어 제1단계 합의사항 중에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UK(United Kingdom)라는 영국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지금처럼 추상적인 문구의 합의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와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온 브렉시트라는 결정이 얼마나 즉흥적이거나 혹은 졸속으로 이뤄졌는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제2단계 협상에 포함되는 ‘탈퇴 협정’과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은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통상 관계, 외교 관계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또한 유럽연합이 첫 탈퇴 회원국이 된 영국과의 협상이 앞으로 유럽연합을 탈퇴하거나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회원국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엄격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앞으로 영국 국내의 정당 정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불확실성, 불투명성은 짧은 시간 안에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과 같은 유럽연합 역외 국가는 전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영국과 이제까지의 유럽연합과의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영국과 유럽연합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국제 무역, 국제 관계 질서의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 모두에게 조속히 브렉시트 협상이 마무리되어 확정된 형태의 협정이 나오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앞으로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무역, 외교 관계의 협정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국에서 일부 세력에 의해 국민투표 재실시의 움직임이 있으나 유럽연합이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고 실제 구속력은 없지만 상원에서 강성 브렉시트 관련 조치들이 연속적으로 부결되고 있어 적어도 2018년 10월까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한국의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 Notes

- 1) 투표 개표 다음날 영국독립당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선거 운동원의 개인적인 실수라고 변명하여 커다란 파문이 되었다.
- 2) 임금과 국민소득이 낮은 동구권 신입 유럽연합 회원국들 국민들에게 선진국 중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국가 중의 하나가 영국이며 이는 영어라는 언어의 접근성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 3) 콜빈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자신이 어느 쪽에 투표하였는지 밝히기를 거부하여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 인 용 문 헌

- 강유덕. 「브렉시트 이후 Global Britain 추진을 위한 영국 통상정책의 세부과제와 전망」. 『유럽연구』 35.2 (2017): 51-88.
- 김용민. 「신 노동당 제3의 길은 실패하였는가?: 노동당 집권기(1997-2010)부터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까지」. 『유럽연구』 34.1 (2016): 137-58.
- 김용민, 박영득. 「2017년 영국 조기 총선거 집합자료 분석: 유럽연합탈퇴를 앞둔 불확실성의 증대」. 『EU연구』 47 (2017): 139-68.
- 김종욱. 「브렉시트(Brexit)가 EU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4.3 (2016): 127-48.
- 박광수.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경제적 환경변화」. 『유럽연구』 35.1 (2017): 191-213.
- 방청록. 「브렉시트 결정의 유럽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영향 연구」. 『유럽연구』 35.1 (2017): 59-96.
- 온대원. 「브렉시트와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유럽연구』 35.3 (2017): 55-103.
- 윤성욱. 「양날의 칼로서의 영국 정체성-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실패와 영국의 EU 탈퇴」. 『영국연구』 38 (2017): 231-65.
- 이영석. 「브렉시트, 어떻게 볼 것인가?」. 『영국연구』 37 (2017): 129-54.
- 황기식, 문보경, 손수연. 「영국 메이(May)총리의 브렉시트(Brexit)정책에 대한 집권보수당과 의회의 입장: 주요 이슈별 다차원적 분석」. 『유럽연구』 35.2 (2017): 1-24.
- Applebaum, Anne. "Britain after Brexit: A Transformed Political Landscape." *Journal of Democracy* 28.1 (2017): 53-58. Print.
- Bailey, David. "Misperceiving Matters, Again: Stagnating Neoliberalism, Brexit and the Pathological Responses of Britain's Political Elite." *British Politics* 13

- (2018): 48-64. Print.
- Brooks, Libby. "SNP Invites Opposition Leaders to Summit to Fight Hard Brexit." *The Guardian*. The Guardian, 28 December 2017. Web. 9 May 2018.
- Chun, Kwang Ho. "Brexit and the Future Implications for European Security: Starting of the New Debate." 『유럽연구』 34.4 (2016): 331-62. Print.
- House of Commons Library. "Brexit: Some Legal and Constitutional Issues and Alternatives to EU Membership." *Parliament.uk*. UK Parliament, 28 July 2016. Web. 4 May 2018.
- Hughes, Laura. "EU Referendum: Tory Minister Rubbishes Cameron's Claim That Turkey 'Won't Ever' be Allowed to Join the EU." *The Telegraph*. Telegraph Media Group, 22 May 2016. Web. 6 May 2018.
- "Jeremy Corbyn Backs Permanent Customs Union after Brexit," *BBC.com*. Broadcasting Company, 26 February 2018. Web. 4 May 2018.
- "Joint Report from the Negotiator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 on Progress during Phase 1 of Negotiations under Article 50 TEU on the United Kingdom's Orderly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Website. European Commission, 8 December 2017. Web. 6 May 2018.
- Lynch, Phillip, et al. "All Brexiteers Now? Brexit, the Conservatives and Party Change." *British Politics* 13 (2018): 31-47. Print.
- Mason, Rowena. "Jeremy Corbyn Insists UK Cannot Remain in Single Market after Brexit." *The Guardian*. The Guardian, 8 January 2018. Web. 12 May 2018.
- \_\_\_\_\_. "Nigel Farage Resigns as Ukip Leader after 'Achieving Political Ambition' of Brexit." *The Guardian*. The Guardian, 4 July 2016. Web. 4 May 2018.
- McEwen, Nicola. "Brexit and Scotland: Between Two Unions." *British Politics* 13 (2018): 65-78. Print.

- “Net Migration to UK hits Record 336,000, Statistics Show.” *BBC.com*. Broadcasting Company, 26 November 2015. Web. 4 May 2018.
- O’Carroll, Lisa. “Arlene Foster Hits Out at Michel Barnier over Irish Border.” *The Guardian*. The Guardian, 30 April 2018. Web. 12 May 2018.
- Shankleman, Jess. “U.K. Brexit Divorce Bill Is 37.1 Billion Pounds, Says Watchdog.” *Bloomberg.com*. Bloomberg, 13 March 2018. Web. 9 May 2018.
- Smith, Julie. “Gambling on Europe: David Cameron and the 2016 Referendum.” *British Politics* 13 (2018): 1-16. Print.
- ““US should Stick out of UK Affairs’ - UKIP MEP.” *RT.com*. Reuters, 30 June 2016. Web. 6 May 2018.
- Watson, Matthew. “Brexit, the Left Behind and the Let Down: The Political Abstraction of ‘the Economy’ and the UK’s EU Referendum.” *British Politics* 13 (2018): 17-30. Print.

## Abstract

# Changes of the British Political Parties after Brexit Referendum

Yongmin Kim (Konkuk University)

On the 23<sup>rd</sup> of June 2016, the unexpected outcome of referendum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from the European Union was in favour of British exit, or “Brexit.” Since then, much has been written about the effects of Brexit. Although almost two years have passed since Brexit negotiations began between the UK and the EU, many issues remain unresolved. This paper aims to analyse changes in British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to examining Britain’s changing economic influ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fter the referendum. In the first phase of Brexit negotiations, the most potentially disruptive element was the Ireland-Northern Ireland border issue, which coincided with the recurrence of the Scottish independence referendum and maintaining the Conservative coalition government. Brexit negotiations have already directly influenced British domestic party politics. This uncertainty associated with Brexit will not be settled soon. Therefore, Koreans should follow Brexit negotiations closely and build new relations with the UK and the EU by observing their relationship as it changes.

**Key Words:** Brexit, Brexit negotiation, Conservative Party, Labour Party, Theresa May



논문접수일: 2018.05.15

심사완료일: 2018.06.07

게재확정일: 2018.06.17

이름: 김용민

소속: 건국대학교

이메일: kym7224@naver.com

